

# 「로동신문」에 나타난 북한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분석

김 석 항\* · 김 경 미\*\*

- I. 들어가는 글
- II.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의 제정과 시행 경과
- III.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 IV. 분석대상 자료의 특성과 수집 과정 소개
- V. 「로동신문」 관련 기사 내용분석
- VI. 맺음말

## 국문요약

북한당국은 정권 초창기부터 공교육 제도 정비에 관심을 기울였다. 실제 북한당국은 공교육 제도를 통해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체제 유지에 필요한 인력 양성의 뜻을 수시로 밝혔다. 김정은 시대를 열면서 북한당국이 의무교육 학제개편부터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당국이 의무교육 기간 1년 연장을 결정하면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통해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원하는 변화가 북한사회 전역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을 풀어나가기 위해 이 논문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로동신문」 수록 기사에서 북한의 12년제 의무교육 관련 내용을

전수조사한 뒤 내용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북한당국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목표는 ‘새 세기 혁명’과 ‘인재 강국’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교육 제도 시행을 위한 교수방법의 변화와 외형적인 교육조건과 환경 개선에 힘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당국의 독려로 물리적인 학교 환경이 조성되면서 교육제도 시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거나 대중 동원을 통한 개선 사업 자체가 북한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주제어:**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북한 교육, 「로동신문」, 김정은 시대

\*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석사과정 재학

## I. 들어가는 글

이 논문의 목적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로동신문」 수록 기사에서<sup>1</sup> 북한의 12년제 의무교육 관련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김정은 시대를 열면서 북한당국이 의무교육 학제개편부터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당국이 의무교육 기간 1년 연장을 결정하면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통해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원하는 변화가 북한사회 전역에 나타나고 있는가? 연구진은 이런 의문을 해결하는 첫걸음으로 「로동신문」 수록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 구체적인 표현 양태를 확인하고 그 속에 숨어 있는 행간의 의미를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 기간을 2014년 9월 이후 2016년 10월까지 2년 1개월로 설정한 이유는 북한당국이 2012년 9월 25일에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sup>2</sup> 법령을 제정한 이후 이 제도를 실제로 시행할 것을 공포한 2014년 신학기 시작 시점부터 2년 정도 지난 시점까지<sup>3</sup> 「로동신문」 수록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사일정에 따르면 1학기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이고 2학기는 10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이 논문의 분석 대상 기간은 북한당국이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처음 선언한 시점부터 2년 동안 시행 초기 과정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어린 세대를 사회화하는 여러 방법으로” 구성하는 행위에 해당한다.<sup>4</sup> 사회화란 생물학적 존재로 태어난 개인이 그 사회의 지배적인 언어와

<sup>1</sup> 이 논문에서 북한당국이 발행한 문서 자료를 직접 인용하거나 북한용어를 사용할 경우 대한민국 국립국어원에서 규정하는 맞춤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현행 북한 표기법을 그대로 따랐다. 그런 맥락에서 논문 전반에 「로동신문」 대신 「로동신문」으로 표기했고 제2장에서는 원전 표현을 따라 “공산주의적혁명인재” 및 “공산주의적 혁명인재” 용어를 병행 사용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sup>2</sup> 2012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회의에서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면서 김정은의 조국관, 후대관, 미래관이 집약되어 있는 중대한 조치인 것과 전국가격, 전인민적, 전사회적 사업임을 밝혔다.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2년 9월 26일.

<sup>3</sup> 북한당국은 2014년 4월 신학기부터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北, 12년제 의무교육 올해 4월 신학기부터 시행,” 『연합뉴스』, 2014년 1월 27일. 그리고 2017년 4월 1일에는 “조선에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주체 106(2017)년 새 학년도가 시작되었”고 하는 소식을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내보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북한정보포털: <<http://nknin.fu.unikorea.go.kr/nkp/trend/viewTrend.do>> (검색일: 2016.11.8 / 2017.4.9).

가치, 규범, 태도, 지식, 기술, 생활방식을 학습하여 사회적 존재인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결국 교육은 사회공동체를 지속하는 행위로 구성원의 가치관과 세계관, 삶의 양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능도 담당하며 체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사회화 수단의 하나라 하겠다.<sup>5</sup> 그런 의미에서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공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체제를 유지하는 길을 제시하고 재생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면서 신념체제와 가치관의 내면화를 유도하게 된다.<sup>6</sup>

북한당국도 정권 초창기부터 줄곧 체제 유지 방안으로 공교육 제도를 강력하게 정비해 왔다. 실제로 북한당국은 공교육 제도를 통해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체제 유지에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겠다는 뜻을 수시로 밝혔다. 이런 배경을 토대로 2012년 9월 25일에 북한의 입법기관 최고인민회의가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을 제정하고 2014년 4월 신학기부터 북한 전역에 실시한다고 공언한 일이<sup>7</sup>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런 상황이 주민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로동신문」 관련 기사를 통해 이 논문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 제정 이전과 그 이후를 구분하여 북한의 교육 현황이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그 경과를 서술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북한 교육 관련 선행연구의 유형과 주요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4장에서 분석대상 자료의 수집 과정을 기술하였다. 「로동신문」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 기사를 전수 조사하여 이 기간 동안 북한당국이 12년제 의무교육 관련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찾아낸 과정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서 수집했던 「로동신문」 자료를 토대로 내용분석을 시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해당 신문기사의 숨은 의미를 추정하였다.

<sup>4</sup> 김경희, 『교육학 개론』 (서울: 집문당, 2011), pp. 16~17.

<sup>5</sup>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6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연구원, 2016), p. 223.

<sup>6</sup> 조정아·이교덕·강호제·정채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 3.

<sup>7</sup> 12년제 의무교육은 2014년 4월 신학기부터 시행됨을 공지했다. “北, 12년제 의무교육 올해 4월 신학기부터 시행,” 『연합뉴스』, 2014년 1월 27일. 북한정보포탈: <<http://nkinfo.unikorea.go.kr/nkp/trend/viewTrend.do>> (검색일: 2016.11.8).

## II.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의 제정과 시행 경과

분단 직후부터 줄곧 “인민의 교육” 문제에 관심을 천명하던 북한당국은 6.25 전쟁 이전에 5년제 초등의무교육제 시행을 결의하였지만 전쟁의 여파로 실제 시행하지는 못했다. 그 뒤 몇 차례 변경 과정을 거쳐 1973년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과 1년제 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 데 대하여” 법령을 제정하였다. 1975년에는 그 뒤 40여 년 동안 북한교육의 근간을 이루어 온 11년제 의무교육제도를 도입했다.

그런 의미에서 2012년 9월 25일에 최고인민회의가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을 제정하고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북한 내부에서 사회적 파장이 큰 변곡점을 이루는 일이라 하겠다. 이 부분에서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 제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북한사회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약해 보고자 한다.

### 1.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 제정 이전의 역사적 과정

북한당국은 6.25 전쟁 이전에 5년제 초등의무교육제 시행을 결의했으나 전쟁을 도발하면서 그 제도를 시행할 여력이 없었던 것 같다. 1956년에는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라’ 구호 아래 4년제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했다.<sup>8</sup> 당시 초등의무교육은 학교 복구 건설 사업과 교원 양성 및 충원, 교육 기자재 및 비품 확보, 교과서 출판을 추진하면서 ‘전인민적’ 운동과 사회단체, 북한 당국의 지원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개해 나갔다. 전쟁 이후 자녀를 교육시키려는 주민의 교육열과 전후 복구 및 체제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려 했던 북한당국의 욕구가 맞았던 것이다.

1958년에는 7년제 중등의무교육을 추진했다. 당시 북한당국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력 양성 계획을 농업협동조합 중심으로 진행했다. 농업협동조합은 전후복구 과정에서 학교 증설에 필요한 재원과 노력동원을 ‘전인민적’ 운동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북한당국의 예상보다 교실 증축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7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다.<sup>9</sup> 한편 1958년부터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통해 전후 복구에

<sup>8</sup>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6 북한이해』, pp. 227~228; 이향규·조정아·김지수·김기석, 『북한 교육 60년: 형성과 발전, 전망』 (서울: 과학교육사, 2010), pp. 112~113.

<sup>9</sup> 위의 책, pp. 66~67.

필요한 기술인력양성을 추진하면서 고등기술전문학교를 새로 만들고 고급중학교를 폐지하여 2년제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를 신설했다. 1인 1기술교육을 강조하고 2년제 기술학교에서 교육과정 1/2를 실제 직업기술교육에 배정하여 졸업 후 바로 생산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실습 시설을 갖추어 줄 여력이 없었고 기술학교 한 곳에서 다양한 공업 분야 기술자를 양성할 여건이 아니었다. 북한당국은 결국 직업기술교육을 기초기술교육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1966년 김일성은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시기 학제개혁과 기술의무교육의 특징은 “의무교육단계에서 중등일반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었다.<sup>10</sup> 일반교육의 강조는 기초이론을 튼튼히 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상교육을 강화하는 활동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정책이었다. 1960년대 김일성 중심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으로 사상교육을 중시했던 것이 기술의무교육제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sup>11</sup> 당시 김일성은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면 물질적 기초를 세우는 것보다 사람의 의식을 개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교육에서 규율을 강화하고 공산주의 교양을 준수하며 산 지식을 가르치겠다고 했다.<sup>12</sup>

북한당국은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소련 교육학을 토대로 교육체계를 정비해 왔다.<sup>13</sup> 그러나 1970년에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철저한 구현을 넘어서서 사회주의 교육학은 더욱 완성되어야 할 것이며, 학교교육 사업에서 주체와 노동계급의 선이 똑바로 서고 교육의 과학적 이론 수준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을 주장하면서 이른바 북한식 사회주의 교육학을 만들기 시작했다. 1972년 김일성은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 데 대하여” 담화문을 발표함으로써 주체사상을 교육 분야에 구현하려 했다. 1973년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과 1년제 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 데 대하여” 법령을 제정하고 1975년에 11년제 의무교육을 시작하였다.<sup>14</sup> 당시 북한 전 지역에 유치원 1년,<sup>15</sup>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도입했다. 북한당국

<sup>10</sup> 이향규·조정아·김지수·김기석, 『북한 교육 60년: 형성과 발전, 전망』, pp. 118~120.

<sup>11</sup> 김지수, “북한의무교육제도의 전개와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추진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사회학 연구』, 제23권 3호 (2013, 9), p. 68.

<sup>12</sup> 김형찬, 『북한의 주체교육사상』 (서울: 한백사, 1990), pp. 82~86.

<sup>13</sup> 1961년 9월 김일성은 제4차 당대회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교육이론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동규, 『사회주의 교육학』 (서울: 주류, 1988), p. 387.

<sup>14</sup> 김지수, “북한의무교육제도의 전개와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추진에 대한 연구,” p. 68.

<sup>15</sup> 1973년 개정된 ‘전반적 10년제고중의무교육’ 법령에서 만5세 아동에게 취학전 아동교육을 실시

은 11년제 전반적의무교육제도 실시로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수업료 이외 약간의 학용품, 의복, 신발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국정가격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조치를 취했다.<sup>16</sup> 그리고 1975년에 사회과학출판사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리론』 및 『사회주의 교육학』 등 관련 책자를 발간했다.<sup>17</sup>

이런 흐름 속에서 북한당국은 1977년에 북한식 사회주의 교육이론의 결정판인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했다. 테제는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라고 밝혀 놓았다.<sup>18</sup>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북한의 교육 시스템은 무너졌다. 북한당국이 학교 운영을 전혀 지원하지 못하면서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교 이탈 현상도 일어났다. 학생과 학부모가 ‘세 부담’ 때문에 학교를 이탈하는 현상도 심해졌다.<sup>19</sup> 이런 와중에도 북한당국은 테제를 토대로 1999년과 2004년에 교육법 제정과 개정, 2011년 보통교육법 제정, 2012년 고등교육법 제정을 통해 교육체계를 정리하려 했다.<sup>20</sup>

## 2.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 제정 이후의 역사적 과정

2012년 9월 25일에 북한 입법기관 최고인민회의가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

---

할 것을 발표했다. 김형찬, 『북한의 주체교육사상』, p. 101; 1974년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되면서 3년제 유치원은 4살~5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낮은반과 높은반으로 구성된 2년제 유치원이 되었다. 모든 어린이는 유치원에서 1년제학교전교육을 받게 되었다. 1976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채택하여 학교전교육제도를 법적으로 발전시켰다. 유치원 교양교육의 목적은 지덕체를 겸비한 참다운 혁명인재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도덕교양, 지식교육, 문화정서교양, 체육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낮은반 교양내용은 탁아소 이후 정규적인 교육기관의 영향을 받게 되는 어린이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이야기, 놀이, 노래, 춤, 운동, 말, 셈 세기, 그리기, 만들기 교육이 이루어진다. 높은반 교육내용은 도덕교양, 우리 말교육, 셈세기, 노래, 춤, 그리기, 만들기, 체육 교육이 이루어진다. 조선백과사전편찬위원회, 『광명백과사전 7: 교육, 어학, 출판보도』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11), pp. 66~69.

<sup>16</sup> 문장순, “북한 교육의 변화와 당면과제,” 『남북문화예술연구』, 제6권 (2010), p. 242.

<sup>17</sup> 이향규·조정아·김지수·김기석, 『북한 교육 60년: 형성과 발전, 전망』, pp. 121~123.

<sup>18</sup>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동경: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 1977), p. 3.

<sup>19</sup> 북한 시장화 형성으로 노동력 시장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홍장마당의 경우 12살에서 30세 사이의 사람들(삿별이꾼)이 대략 20명 정도가 항상 있다고 한다. 이들은 12세~16세가 대부분이며 여자가 70%를 차지하는데 장마당 앞에 서있으면서 짐을 운반해주고 돈을 받는다고 한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NK Vision』, 2009년 9·10월호, pp. 4~5;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134~135에서 재인용.

<sup>20</sup> 김지수, “북한의무교육제도의 전개와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추진에 대한 연구,” pp. 68~69.

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을 제정하였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은 전국가적, 전인민적, 전사회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 요구와 세계적 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여 세 세대들을 중등일반지식과 현대적인 기초 기술지식, 창조적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선언하였다.<sup>21</sup> 그리고 2014년 4월 신학기부터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공지했다.<sup>22</sup>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은 5세~17세 사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1년제 학교 전 교육(유치원) 1년과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구성한다고 밝혔다.<sup>23</sup> 소학교 교육 기간을 1년 연장하고 6년제 중학교는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과정 각 3년으로 구분하였다. 북한당국은 12년제 의무교육을 모든 지역에 적용하고 교원 보충과 교육 방법을 개선하고<sup>24</sup> 실험 실습실 정보화 및 교육행정 관리를 컴퓨터로 하며 교육기관을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겠다고<sup>25</sup> 선언했다.

북한당국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법령을 통해 교육 사업에 필요한 국가적 투자를 높이고 교육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sup>26</sup> 부족한 학교를 새로 건설하며 통학거리가 먼 농촌 및 산간지역 분교와 교원, 학생에게 ‘통학빠스·통학열차·통학배’ 운영을 정상화하고 필요한 교구와 학용품, 실험기구 등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행정적 지도와 법적 통제를 강화하며 도·시·군인민위원회는 학교후원단체를 정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한편 각급 인민보안, 검찰기관은 교원, 학생을 국가적 동원 외 다른 일에 무질서하게 모이는 것을 법적으로 통제하겠다고<sup>27</sup> 북한당국은 주장했다.

12년제 의무교육은 김정은 정권의 출범의 정치적 측면과 교육 정상화 시도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할아버지 김일성 이미지를 모방하면서 주민의 관심사인 교육 정책을 활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민의 경제적 생활수준

<sup>21</sup>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은 김정은의 조국관, 후대관, 미래관이 집약되어 있는 중대한 조치로서 북한당국이 교육강국, 발전된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2년 9월 26일.

<sup>22</sup> 12년제 의무교육은 2014년 4월 신학기부터 시행됨을 공지했다. “北, 12년제 의무교육 올해 4월 신학기부터 시행,” 『연합뉴스』, 2014년 1월 27일.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trend/viewTrend.do>> (검색일: 2016.11.8.).

<sup>23</sup> 『로동신문』, 2012년 9월 26일.

<sup>24</sup> 위의 신문, 2012년 9월 26일.

<sup>25</sup> 위의 신문, 2012년 9월 26일.

<sup>26</sup> 위의 신문, 2012년 9월 26일.

<sup>27</sup> 위의 신문, 2012년 9월 26일.

을 높일 수 없는 상황에서 차선택으로 교육 영역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초등 교육 기간을 연장하여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중등교육을 초급단계와 고급단계로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sup>28</sup> 세계적 수준에 맞추려고 시도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 III.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 1. 선행연구 검토

12년제 의무교육 관련 연구에서 김정은 시대의 교육정책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후계자로 정통성을 보여주는 시도로 평가하는 사례가 많다.<sup>29</sup> 이 부분에서 몇 편의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

우선 김지수(2013)는 북한당국이 12년제 의무교육 실시로 주민의 지지를 얻는 한편 주민의 힘으로 학교 교육을 선진화하여 경제발전 동력을 얻으려 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학교 교육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는 어느 정도 상황이 달라졌다. 이 과정에서 수재양성기관인 제1중학교와 다른 중학교의 교육 격차가 커짐으로 교육 불평등이 심해졌다. 자연히 제1중학교에 진학하려는 입시경쟁으로 사교육이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당국이 12년제 의무교육을 통해 학교 교육 불평등을 줄여 주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분석한 것이다. 12년제 의무교육 해당 법령에 따르면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 요구와 세계적인 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새 세대들을 완성된 중등일반 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 창조적 능력을 소유한” 인재 양성을 강조해 놓았다. 경제발전을 위한 인재양성 목적으로 교육개혁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12년제 의무교육 도입 배경 목

<sup>28</sup> 북한당국의 교육개혁 의도는 해당 법령과 최고인민회의의 보고문에 드러난다. 해당 법령에는 학제 개편 성격을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 요구와 세계적인 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새 세대들을 완성된 중등일반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 창조적 능력을 소유한 주체형의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보고문에서는 “소학교 학생들이 학습부담을 받으면서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던 부족점과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의 중등교육이 6년동안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이어지는 데로부터 나타나는 불합리성을 없애고” 청소년 연령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인 의무교육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조경아·이교덕·강호제·정채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pp. 20~21.

<sup>29</sup> 김지수, “북한의무교육제도의 전개와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추진에 대한 연구,” pp. 59~82; 박찬석, “북한의 새로운 세대와 교육: 북한 교육의 현실과 전망,”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제1권 (2014), pp. 51~71; 한만길·이관형, “북한의 12년제 학제 개편을 통한 김정은 정권의 교육정책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2호(2014), pp. 233~254.



적으로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후계자로서 의무교육 확대 전통을 이어간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박찬석(2014)은 김일성과 김정일은 혁명역사교육 같은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내·외부 소통을 단절하고 체제를 유지하려 했으나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 교육관에서 사상의 강화와 세계적 추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시절에는 교육 분야에서 사상에 뿌리를 내리는 조치를 강조하면서 국제적 교육 추세를 따르려 했다면 김정은은 교육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변화를 이루어 나가려 했다는 것이다. 북한당국이 교육제도의 변화를 모색했다는 점은 김정은이 전국교육일꾼대회에서 발표한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 담화문 발표로 확인할 수 있다.<sup>30</sup> 김정은은 담화문에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해 21세기 사회주의 교육강국” 건설을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로 제시했다. 결국 김정은 정권은 교육제도 변화를 통해 세계적 추세와 균형을 이루는데 필요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움직여 왔다고 분석했다.

한만길·이관형(2014)은 김정은 정권의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추진을 두 가지 배경으로 설명했다. 첫째,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12년제 학제 개편 이유는 중등교육에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고급 전문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어 ‘지식경제형 강국’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은 2000년대 이후 출산율 저하로 노동력 및 군사력 규모 감소를 예측하면서 1인당 생산성을 높이려고 과학기술 분야의 첨단 인력 양성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둘째, 정치사상적 배경으로 1975년부터 시행된 11년제 의무교육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공적으로 돌리고 12년제 의무교육 시행은 김정은이 직접 교육제도 방향을 제시했다고 부각시킨다고 분석했다.<sup>31</sup> 북한 언론 매체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제도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령도 따라 김정일애국주의가 전면적으로 구현된 사회주의문명국, 백두산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 전국, 전민을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라고 밝힌 바 있다.<sup>32</sup> 김정은 정권의 12년제 의무교육 목적은 중등교육을 통

<sup>30</sup>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2014년 9월 6일.

<sup>31</sup> “12년제 의무교육,” 《원수님께서 직접 받기》, 『조선신보』, 2012년 10월 10일; “우리는 인재대국을 지향한다,” 인터뷰-교육위원회 리관호국장, 『조선신보』, 2012년 10월 10일; 한만길·이관형, “북한의 12년제 학제 개편을 통한 김정은 정권의 교육정책 분석,” p. 242.

<sup>32</sup> 『조선중앙통신』, 2012년 9월 25일; “청소년학생들속에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심도있게 벌려 나가자,” 『교육신문』, 2012년 6월 21일; 위의 글, p. 242.

하여 과학기술 발전 추세에 맞는 지식과 정보의 기본 능력을 습득하고 학생의 연령별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심리적 특성, 도덕적 품성, 정치조직생활 특성에 맞는 교육 사업을 진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김정에는 대한 충성과 우상화 교육을 도모하고 중등일반교육 수준 향상을 꿈꾸는 시도로 본 것이다.

## 2.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의 차별성을 시도하였다. 지금까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 관련 분석을 시도한 선행 연구는 「교육신문」이나 『인민교육』, 『교원선전수첩』, 『고등교육』 등 북한당국이 발행하는 교육 분야 신문이나 잡지에서 분석대상 자료를 선택하였다. 이런 자료는 교육 부문에서 북한당국의 정책적 의도를 보여주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지 관련 정보를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로동신문」은 그 한계를 보완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북한당국은 신문이란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규정한다.<sup>33</sup> 이런 이유로 「로동신문」 기사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 관련 북한 내 사회현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연구방법의 차별성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로동신문」에 실린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 기사를 수집하여 내용분석을 시행했다. 「로동신문」 기사 내용분석을 위해 북한교육 관련 이론을 검토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 기사의 분석유목을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는 포괄적인 문헌연구로 내용분석을 접근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유목을 설정한 내용분석으로 북한교육과 관련한 북한사회 현상을 파악하고 행간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 IV. 분석대상 자료의 특성과 수집 과정 소개

### 1. 분석대상 자료: 「로동신문」

「로동신문」은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1945년 11월 1일 창간이 되었다.<sup>34</sup> 「로동신문」은 1945년 11월 1일 당 기관지 「정로」로 시작했는데, 1946

<sup>33</sup> 김영주,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과의 연계: <로동신문> 언론관련 사설을 중심으로,” 『언론학 연구』, 제6집, 2002, p. 23.

년 9월 조선신민당 기관지 「전진」과 통합하여 조선로동당 기관지로 발간하기 시작했다.<sup>35</sup> 『조선대백과사전』에는 「로동신문」이란 “김일성이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한 혁명적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고 주체사상과 주체적출판 보도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주체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는데 이바지하는 것이 사명”임을 설명하고 있다.<sup>36</sup> 1975년 11월 1일 창간 30주년 기념사설에서는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고 그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해설·선전하며 구현함으로써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 보위하기 위한 당의 사상적 무기이다”라고 언급했다. 김일성도 「로동신문」이 “당의 정책방향을 인민들에게 제시하고 그 실행에로 고무 추동하는 당의 지도자”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sup>37</sup>

「로동신문」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사설, 성명서 등이 빠짐없이 나오기 때문에 북한당국이 주도하고자 하는 사회적 담론을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로동신문」을 분석 자료로 선택했다. 「로동신문」이야말로 북한당국의 관점을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주요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자료로 분석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 2. 분석대상 자료의 수집 과정

이 논문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로동신문」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관련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분석대상 시기는 2012년 9월 25일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법령 제정 후 북한당국이 실제 시행을 선언한 시점인 2014년 4월 신학기 이후 한 학기가 지나고 난 뒤 총 2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결정했다. 북한에서 1학기는 4월 1일~9월 30일이므로 이 논문은 북한당국이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첫 실시를 공포한 2014년 4월 신학기가 지나고 난 이후부터 2016년 1학기 마무리 시점까지 2년 동안 진행 상황을 분석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분석대상 자료의 수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단계에서는 북한대학원대학교 도서관 특수자료 디지털콘텐츠 열람 전용 PC를 사용하여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로동신문」을 일별로 열람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사

<sup>34</sup>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7)』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88), p. 4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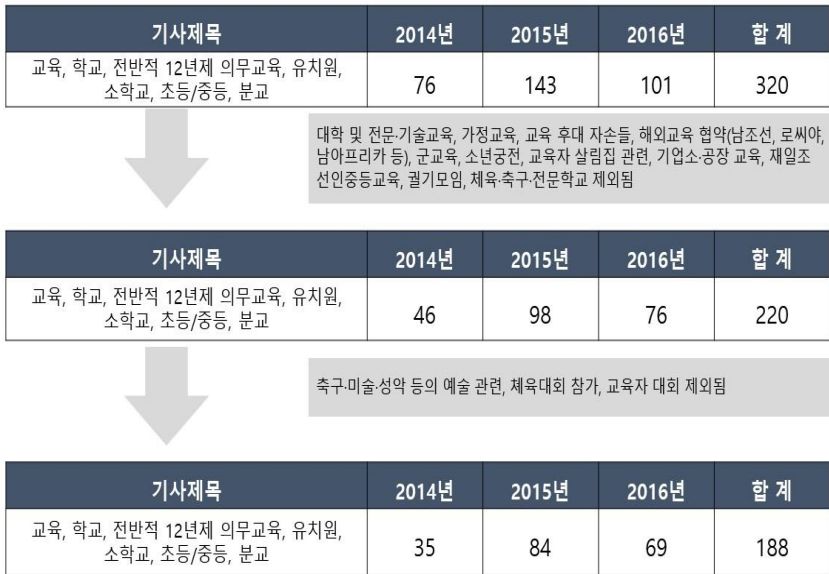
<sup>35</sup> 제2편 제1장,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창건, 반제 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수행을 위한 당의 투쟁,”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주체로동당출판사, 2006), pp. 130~155.

<sup>36</sup>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7)』, p. 489.

<sup>37</sup> 이은숙, 『북한사회연구: 사회학적 접근』 (서울: 서울대학교출판사, 1988), p. 136.

제목에 ‘교육’, ‘학교’,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유치원’, ‘소학교’, ‘초등/중등’, ‘분교’ 같은 단어가 나오면 빠짐없이 수집했다. 이렇게 1차로 수집한 기사는 총 320편에 이른다. 다음으로 제2단계에서는 기사의 제목 중에 “대학 및 전문·기술교육, 가정교육, 해외교육 협약(남조선, 로씨야, 남아프리카 등), 교육 후대 자손들, 군교육, 소년궁전, 교육자 살림집 관련, 기업소·공장 교육, 재일조선인중등교육, 쫓기모임, 체육·축구·전문학교” 같은 내용이 나오면 이 논문의 분석대상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했다. 제3단계에서는 제목을 기준으로 북한의 의무교육 범주를 벗어난 “축구·미술·성악 등의 예술 관련, 체육대회 참가, 교육자 대회” 관련 기사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12년제 의무교육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데 필요한 분석대상 기사는 최종적으로 188편을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기사를 선정하는 과정을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로동신문」 기사 제목 검색 흐름도



이렇게 선정한 기사 188편 제목에 등장하는 핵심단어를 기준으로 6개 유목으로 분류했다. 6개 유목은 담론, 교육정책, 교육방법, 교육사업, 대중운동 이외에 정령과 현지도 내용은 따로 분류했다. 하나의 기사에 핵심단어가 반복 등장하면 해당 단어가 나올 때마다 분석에 포함했다.

첫째, 담론 유목에는 “김정은 로작”과 김일성과 김정일 언급 기사, 사실을 포함시켰다. 예를 들면 “김정은 로작” 사례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세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 자>가 제13차 전국교육 일군대회 참가들에게 전달되었다”(『로동신문』, 2014년 9월 6일) 기사를 포함했다. 김정일 언급 사례로는 “<교육하는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입니다> 김정일 - 교육사업을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으로 틀어쥐시고”(『로동신문』, 2014년 10월 20일) 기사를 포함하였다. 사실의 사례로는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로동신문』, 2014년 9월 5일) 기사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둘째, 교육정책은 북한당국이 12년제 의무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육 방향성을 제시하는 핵심단어 기준으로 분류했다. 이를 토대로 새 세기 교육혁명, 사회주의교육체제, 지식경제강국, 인재강국, 12년제 의무교육, 중등일반교육, 전인민과학기술 인재화, 세계적 추세 등 8가지 소분류로 구분했다.

셋째, 교육방법은 4가지로 교수방법, 교원자질, 교육 정보화·현대화로 구분했고, 교양사업은 교육방법 중 하나로 추가했다. 관련 기사 제목을 보고 분류하기 어려운 것은 기사 내용을 참고하여 구분했다. “교육개선을 위하여 어디에 힘을 넣었는가 - 신의주시 관문초급중학교에서”(『로동신문』, 2016년 5월 20일) 기사는 제목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서 본문 내용을 읽고 교수방법에 포함시켰다.

넷째, 교육사업은 5가지로 교육조건과 환경개선, 학교 건설, 분교 관련, 후대교육, 새학년도 준비로 구분했다. 이 부분 역시 기사 제목을 기준으로 분류하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결정했다. 예를 들면, “교육중시의 승고한 화폭”(『로동신문』, 2015년 4월 3일) 기사는 제목을 보면 교육정책에 포함될 것 같지만 본문 내용을 읽은 뒤 세 세대를 키워야 한다는 후대교육 사업을 강조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분류했다.

다섯째, 대중운동은 12년제 의무교육에서 밝힌 “전국가적·전인민적·전사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사를 포함했다. 예를 들면,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을 높여”(『로동신문』, 2015년 11월 30일) 등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여섯째, 정령은 「로동신문」에서 학교 시상 내역을 기재한 것을 포함했다. 그리고 현지도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학교 방문 기사를 포함했다.

## V. 「로동신문」 관련 기사 내용분석

「로동신문」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관련 기사 유목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기사는 크게 담론, 교육정책, 교육방법, 교육사업, 대중운동, 정령과 현지도로 분류할 수 있었다. 분석기사 편수와 유목 분석 편수가 다른 이유는 기사 1건에 핵심단어가 여러 번 나오면 해당 단어를 모두 계수하였기 때문이다.

<표 1>을 살펴보면 대분류를 기준으로 교육사업 유목 기사가 76개로 34.55%를 차지하고 교육방법 유목 기사는 51개로 23.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교육정책 유목 기사가 39개 17.73%를 차지했다. 대중운동 유목 기사는 23개로 10.45%를 기록했다. 한편 담론 유목은 기사 13개로 5.91%를 기록한 반면 정령과 현지도 유목은 각각 기사 9건으로 4.09%를 차지했다. 소분류를 기준으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로동신문」 기사를 통해 북한당국이 12년제 의무교육 관련하여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결국 교육의 외형적 조건을 갖추려 하는 것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소분류 유목별로 기사의 빈도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교육조건과 환경개선 → 교수방법 → 대중운동 → 후대교육 → 담론·새 세기 혁명 → 학교건설 → 교원자질·인재강국 → 분교관련·정령·현지도 → 교육정보화·현대화 → 중등일반교육·교양사업 → 새학년도준비 → 12년제 의무교육·전인민과학기술인재화 → 지식경제강국·세계적 추세 → 사회주의교육테제

<표 1> 12년제 의무교육 기사 유목별 분류

대분류	소분류	기사수	비율(%)
	담 론	13	5.91
	소 계	13	5.91
교육정책	새 세기 교육혁명	13	5.88
	사회주의교육체제	1	0.45
	지식경제강국	2	0.90
	인재강국	10	4.52
	12년제 의무교육	3	1.36
	중등일반교육	5	2.26
	전인민과학기술인재화	3	1.36
	세계적 추세	2	0.90
	소 계	39	17.73
교육방법	교수 방법	28	12.67
	교원 자질	10	4.52
	교육 정보화/현대화	8	3.62
	교양 사업	5	2.26
	소 계	51	23.18
교육사업	교육조건과 환경개선	37	16.81
	학교 건설	11	4.98
	분교 관련	9	4.07
	후대 교육	15	6.79
	새학년도 준비	4	1.81
	소 계	76	34.55
	대중운동	23	10.45
	소 계	23	10.45
	정 령	9	4.09
	소 계	9	4.09
	현지지도	9	4.09
	소 계	9	4.09
	합 계	22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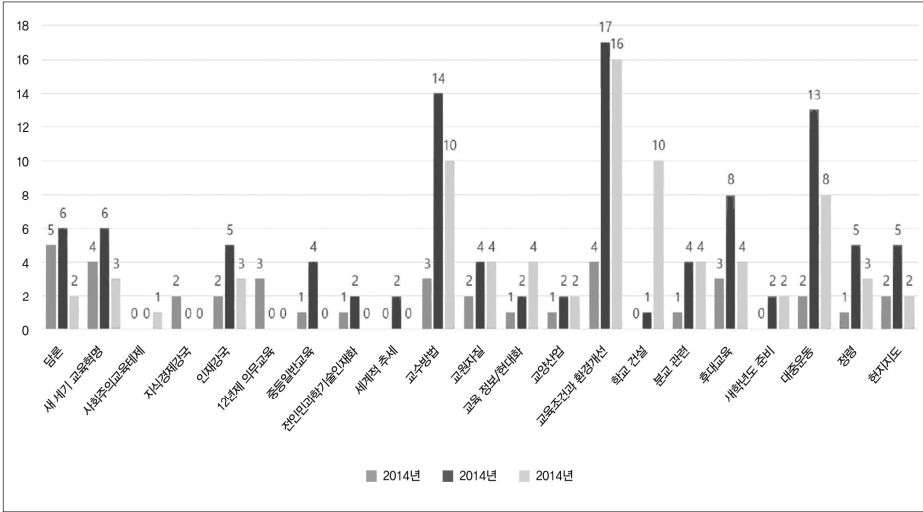
이것을 유목별로 해당 년도에 따라 구분해 보면 <표 2>과 같다. <그림 2>는 <표 2>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유목별 기사년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 자료 기간을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로 한정했기 때문에 기사 편수 빈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표 2> 12년제 의무교육 관련 기사년도 유목별 기사 현황

대분류	소분류	2014	2015	2016	기사수
	담 론	5	6	2	13
	소 계	5 (2.27%)	6 (2.74%)	2 (0.91%)	13 (5.92%)
교육정책	새 세기 교육혁명	4	6	3	13
	사회주의교육테제	0	0	1	1
	지식경제강국	2	0	0	2
	인재강국	2	5	3	10
	12년제 의무교육	3	0	0	3
	중등일반교육	1	4	0	5
	전인민과학기술인재화	1	2	0	3
	세계적 추세	0	2	0	2
	소 계	13 (5.91%)	19 (8.61%)	7 (3.17%)	39 (17.69%)
교육방법	교수 방법	4	14	10	28
	교원 자질	2	4	4	10
	교육 정보화/현대화	1	2	5	8
	교양 사업	1	2	2	5
	소 계	8 (3.64%)	22 (10.00%)	21 (9.56%)	51 (23.20%)
교육사업	교육조건과 환경개선	4	17	16	37
	학교 건설	0	1	10	11
	분교 관련	1	4	4	9
	후대 교육	3	8	4	15
	새학년도 준비	0	2	2	4
	소 계	8 (3.64%)	32 (14.55%)	36 (16.37%)	76 (34.55%)
	대중운동	2	13	8	23
	소 계	2 (0.91%)	13 (5.91%)	8 (3.64%)	23 (10.45%)
	정 령	1	5	3	9
	소 계	1 (0.45%)	5 (2.27%)	3 (1.36%)	9 (4.09%)
	현지지도	2	5	2	9
	소 계	2 (0.91%)	5 (2.27%)	2 (0.91%)	9 (4.09%)
	합 계	39 (17.73%)	102 (46.35%)	79 (35.92%)	220 (100.00%)



<그림 2> 12년제 의무교육 기사년도 유목별 기사 현황



### 가. 담론과 교육정책

담론과 교육정책 유형에 등장하는 핵심단어를 살펴본 결과, 북한당국이 12년제 의무교육을 통해 강조하려는 방향은 ‘새 세기 교육혁명’과 ‘인재 강국’의 두 날개임을 알 수 있다. 담론에서 강조하는 핵심단어는 새 세기 교육혁명, 중등일반교육, 당의 교육중시사상, 인재강국, 후대교육사업이다. 담론은 교육정책에<sup>38</sup>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정책 관련 기사는 2014년 13편, 2015년 19편, 2016년 7편에 이른다. 보도 빈도수를 통해 12년제 의무교육 정책이 ‘새 세기 교육혁명(13편)’과 ‘인재강국(10편)’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북한당국은 “김정은 로작”을 통해 새 세기 혁명의 인재강국으로 나아갈 것을 제시하고 있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는 “우리의 모든 청소년 학생들을 강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우리 나라를 21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으로 되게 하는 것”이다.<sup>39</sup> 12년제 의무교육 관련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2차회의에서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

<sup>38</sup> 북한 당국의 교육정책은 “당과 국가에 의하여 실시”되는 ‘교육시책’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나라의 교육시책들은 교육제도의 본질과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설명한다. 조선백과사전편찬위원회, 『광명백과사전(7):교육, 어학, 출판보도』, p. 56.

<sup>39</sup>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우의 고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가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달되었다.” 『로동신문』, 2014년 9월 6일.

여>” 토론 내용을 게재하면서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을 일떠세우기’를 강조하고 있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는 “중등일반교육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교육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전국가적, 전인민적, 전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sup>40</sup> 그리고 “인재양성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보장하며 교육사업에 “국가적 투자”를 늘리겠다고 설명한다. 중등일반교육 강화는 ‘평양제1중학교’를 본보기로 “수재교육을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인 중등일반교육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올려세우기 위한” 것으로 내세운다. 그에 따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한 혁명적학습기풍” 등으로 무장한 새 세대를 “김정은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선군시대의 역군으로, 강성국가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능력있는 인재”로 준비시키겠다는 것이었다.<sup>41</sup>

## 나. 교육방법

교육방법 관련 기사는 2014년 8편, 2015년 22편, 2016년 21편으로 나타났는데 연도별 차이점이 드러난다. 2014년은 교수방법을 탐구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교수방법을 탐구하여 교수 경연에 참가하거나 혁명교육을 통해 학교의 영예를 높이는 이상적 부분을 강조했다.<sup>42</sup> 2015년 교수방법 특징은 현장 적용 중심이다. 교편물을 제작하고 학교와 가정교육의 일체화를 이루기 위해 학부형을 동원한다. 현실적이고 산 지식을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하고, 교수방법 참관을 통해 실력을 제고하거나 경쟁하게 했다. 새과정안을 집행하는데 있어 교수방법을 강조했다.<sup>43</sup> 2016년은 실용적 교수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교재연구토론을 진행

<sup>40</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의 집행정책총향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4년 9월 26일;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여 이 땅위에 교육의 나라, 인재 강국을 일떠세우자,” 『로동신문』, 2014년 9월 26일.

<sup>41</sup> 위의 신문, 2014년 9월 26일.

<sup>42</sup> “교수방법과 교육의 질제고” - “앞날을 내다보며 중시한 문제 - 안주시 영웅안주고급중학교,” 『로동신문』, 2014년 9월 3일; “불멸의 존함을 모신 학교의 영예를 - 김정숙제1중학교에서,” 『로동신문』, 2015년 9월 22일; “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들에게 쓸모있는 산지식을 배워주기 위하여 서로의 지혜를 합쳐간다,” 『로동신문』, 2014년 11월 30일.

<sup>43</sup> “실력제고를 위해 어디에 힘을 넣었는가? - 원산시 영웅해안고등학교 일군들의 사업에서,” 『로동신문』, 2015년 1월 27일; “교편물제작에 품을 들인 보람 - 만경대구역 광복소학교에서,” 『로동신문』, 2015년 1월 27일; “교육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다 - 원산제1중학교에서,” 『로동신문』, 2015년 2월 13일; “기다려지는 학부형회의로 되기까지 - 김정숙제1중학교에서,” 『로동신문』, 2015년 5월 2일; “교수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도를 탐구하고 있다,” 『로동신문』, 2015년 6월 12일; “현실과 결부된 산지식을 가르칠 때 - 순천시 봉두초급중학교 일군들의

하며 교수안을 새롭게 작성하고, 평가기준 방법 개선 및 창조적 사색과 실천을 강조했으며, 교수방법의 질을 높게 평가한 학교를 실력 있는 학교로 인정했다.<sup>44</sup> 교수방법의 평가기준 개선은 학교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전환”하여 설치된 전자칠판과 컴퓨터 등의 교육 수단을 활용할 줄 아는 것이다. ‘구내망’을 통하여 교원의 교수과정을 ‘교육수단리용정형에 대한 평가’를 하였지만 “학생들의 실력제고에 실지 얼마만한 도움을 주었는가를 정확히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sup>45</sup> 이유는 “국가망을 통하여 과학기술전당에서 보내주는 교육발전추세자료들을 보면서 교원들의 시야가 더욱 넓어지고 그에 따라 새 교수방법들로 날로 다양하게 창조”되기 때문이다. 매일 매일 달라지는 교수방법으로 교원의 노력이 쉽지 않지만 ‘학생들의 실력제고로 이어지면 더 바랄게 없다’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묘사한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성공은 교원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설명한다. 교원은 “주체의 교육사상”을 기본으로 “사회주의교육학, 심리학, 전공과목교수법”을 깊이 연구하여 “선군시대 교육 현실에서 이룩되고 있는 성과와 경험들을 적극 따라배워 풍부한 교육방법론적자질과 능숙한 교육자적 수완”을 소유하는 것이다.<sup>46</sup> 또한, 지·덕·체 겸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고 실력을 갖춘 자’로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진제1중학교에서 실력이 좋은 교원을 선발하여 1학년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서 “그들의 눈빛만 보고도 심리상태를 알아맞힐 수 있는 교육자적경험을 풍부히”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설명한다. 새로운 교수방법을 “교육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의 후대중시 사상을 구현하는 사상교양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다.<sup>47</sup> 또한 교수방법을 탐구하여 혁명교육을 잘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sup>48</sup> 이렇게 교수방법을 위해 노력하는 교원에게 ‘새 교수방법등록증’과 ‘실험기구 및 교편물창안증’을 수여하기도 한다.<sup>49</sup>

사업에서,” 『로동신문』, 2015년 9월 15일; “교수참관과 실력경쟁,” 『로동신문』, 2015년 9월 18일; “새 과정안집행에서 중시한 문제 - 온천군 온천초급중학교에서,” 『로동신문』, 2015년 11월 13일.  
<sup>44</sup> “실력있는 학교로 소문난 비결 - 안악군 양산고급중학교에서,” 『로동신문』, 2016년 1월 20일; “새롭게 작성되는 교수안들 - 연산군 상곡고급중학교에서,” 『로동신문』, 2016년 3월 23일; “교재연구토론을 심화시켜 거둔 성과 - 신의주교원대학부속 소학교에서,” 『로동신문』, 2016년 8월 9일; “새롭게 착상하고 완강하게 실천하여 - 영웅해산제1중학교에서,” 『로동신문』, 2016년 8월 9일.  
<sup>45</sup> “부단히 갱신되는 평가기준 - 선교구역 선교초급중학교에서,” 『로동신문』, 2016년 3월 23일.  
<sup>46</sup> “교수방법개선과 교육의 질제고,” 『로동신문』, 2014년 9월 3일.  
<sup>47</sup> “지식의 높이와 실력의 높이 - 청진제1중학교 일군들의 사업에서,” 『로동신문』, 2015년 8월 11일.  
<sup>48</sup> “불면의 존함을 모신 학교의 영예를 - 김정숙제1중학교에서,” 『로동신문』, 2014년 9월 22일.  
<sup>49</sup> “지덕체를 겸비한 미더운 역군들로 - 라선시 라선지구 3중영예의 붉은기 라진소학교,” 『로동신문』, 2014년 9월 23일; “교육자의 높은 자질은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의 열매 - 모의수업을 통한

교육 정보화·현대화 관련 기사는 2014년 1편, 2015년 2편, 2015년 6편으로 나타났다. 교육 정보화·현대화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 실습실, 실험 실습실 등을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묘사된다. 교양사업 관련 기사는 2014년 1편, 2015년과 2016년 각각 2편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2015년은 도덕교양사업, 2016년은 긍정강화교양사업과 계급교양사업이 등장했다.<sup>50</sup>

### 다. 교육사업

교육사업 관련 기사는 2014년 8편, 2015년 32편, 2016년 36편이다. 보도 기사 빈도 중 교육조건과 환경개선 관련 기사가 높게 나타났다. 신문기사에서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는 ‘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따를수 없는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자’는 당의 정책으로 보인다.<sup>51</sup> 2014년 기사내용은 ‘당의 교육 중시 사상’을 받들어 학교에 실험실습실과 연구실, 소학교를 새롭게 건설하거나 수리하고 학교관리사업으로 나무를 심었다.<sup>52</sup> 특징적인 것은 학교 교직원 중심으로 교육조건과 환경개선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이었다.

2015년 기사는 현대적으로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새 세기의 요구이며 인재 육성의 밑거름이라고 독려하면서 학교관리 사업으로 ‘야외학습터’를 만들거나 나무를 심고, 산골학교와 창광유치원을 새롭게 건설했다고 전달한다.<sup>53</sup> 2015

---

여 해결된 문제 - 해주시 해청고급중학교 일군들의 사업에서,” 『로동신문』, 2015년 9월 18일.

<sup>50</sup> “지덕체를 겸비한 미더운 역군들로 - 라선시 라선지구 3중영예의 붉은기 라진소학교에서,” 『로동신문』, 2014년 9월 22일; “수첩은 작아도 얻는 것은 크다,” 『로동신문』, 2015년 2월 24일; “도덕교양에 힘을 넣어 - 고성군 영웅고성초급중학교에서,” 『로동신문』, 2015년 9월 4일; “긍정적 소행을 적극 내세워주어 - 평천구역 부흥초급중학교에서,” 『로동신문』, 2016년 7월 22일; “계급 교양사업에 힘을 넣어 - 원산시 명석소학교에서,” 『로동신문』, 2016년 8월 11일.

<sup>51</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의 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4년 9월 26일.

<sup>52</sup> “교육환경개선에 큰 힘을 넣어 - 신의주시 김금순초급중학교 교직원들,” 『로동신문』, 2014년 9월 23일;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 벽동군 남중고급중학교 교직원들,” 『로동신문』, 2014년 11월 22일; “새로 일떠선 소학교,” 『로동신문』, 2014년 10월 20일; “모교와 졸업반학생들의 나무심기 - 평원군 영웅평원고급중학교에서,” 『로동신문』, 2014년 11월 30일.

<sup>53</sup> “야외학습터와 교육자의 모습 - 강계시 연풍소학교 교원들,” 『로동신문』, 2015년 2월 14일; “산골학교들의 면모가 달라진다,” 『로동신문』, 2015년 3월 6일; “늘어가는 나무들, 커가는 마음들 - 남포시 천리마구역 고창고급중학교에서,” 『로동신문』, 2015년 5월 10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자고 틀고 있다 - 장진군 장군고급중학교에서,” 『로동신문』, 2015년 9월 3일; “이런 고마운 품에 안겨 우리 후대들이 자란다 - 당의 은정속에 새로 개건확장된 창광유치원을 돌아보며,” 『로동신문』, 2015년 9월 5일; “현대적인 교육조건과 환경을 갖추어놓고 - 함흥제1중학교 일군들의 사업에서,” 『로동신문』, 2015년 9월 18일.

년 교육조건과 환경개선 사업은 2014년과 달리 학교 교원부터 기관이나 지역일군 까지 모두 역할을 부여 받는다는 점이였다. 이런 유형의 기사는 학산고급중학교 건설을 위해 ‘학교건설지휘부’와 ‘형제산구역도시건설대’가 조직되어 학교건설을 ‘구역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구역안의 기관, 기업소들 후원단체들이 모두 발동” 되어 학교 건설에 필요한 시멘트를 제공하였다.<sup>54</sup> 또한 ‘외교단사업총국 일군들’은 ‘새 차’를 마련해주고, 야외운동장의 ‘고무 깔판’을 깔아주거나 교직원과 학생을 위한 식당을 건설할 때 ‘혼식’을 보내주고 “다기능화된 교실을 꾸리는 사업이 벌어질 때에도 수십대의 액정텔레비존을 성의껏 마련”하기도 한다.<sup>55</sup> 부민고급중학교 건설을 돕는 ‘구역당 일군’은 초겨울 구역안의 모든 교사에게 ‘솜옷’ 공급 및 부부교육자의 생활을 돌보거나 ‘교원살림집’을 장만해 주었다. 게다가 구역도서관에 “수십대의 컴퓨터와 발동발전기”를 제공하였다.<sup>56</sup> 학교 명칭을 바꾸는 사업도 진행했는데 강계시 강서고급중학교를 박금산고급중학교로 명명하며 영웅 반신상을 제막했다.<sup>57</sup>

2016년 기사 내용은 ‘70일 전투’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일군과 학부모 중심으로 북한당국의 교육 원칙인 ‘전당적·전국가적·전인민적’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전한다. 함흥 초등·중등학교 및 숙천군 평화고급중학교, 평천구역 새마을 유치원을 건설했고<sup>58</sup> 피해지역에 대동강구역 일군을 동원하여 교육조건을 보장하

<sup>54</sup>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은 인재육성의 튼튼한 밑거름 - 이들처럼 자기 단위의 교육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자 - 형제산구역 일군들의 사업에서,” 『로동신문』, 2015년 5월 4일.

<sup>55</sup>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에 사회적 관심을 - 진정으로 도와주자 - 외교단사업총국 일군들,” 『로동신문』, 2015년 5월 29일.

<sup>56</sup> “교육사업을 자기 뚝으로 틀어쥐 때 - 동흥산구역 당위원회 사업에서,” 『로동신문』, 2015년 6월 7일.

<sup>57</sup> 자강도인민보안관국 폭발물처리대 대장 박금산이 폭발물 처리과정에서 혁명동지를 구원하고 희생된 것을 영웅화하여 박금산 모교에 반신상을 제막했다. “강계시 강서고급중학교를 박금산고급중학교로 명명 - 영웅의 반신상 제막,” 『로동신문』, 2015년 12월 25일; 학교명에 붙여진 영웅은 한국전쟁의 전쟁영웅이거나 ‘노력영웅’으로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보인 인물이다. ‘영웅’을 많이 배출한 학교에 ‘영웅’ 칭호를 붙이기도 했다. 2003년 영웅강계자산제1중학교에서 교사들이 영웅학습실을 마련하여 동료 출신 영웅 19명의 사진과 소개판을 설치하고 300여점의 직관물을 부착하였다고 한다. 조정아, “김정일 시대의 북한 교육 정책”, 『아시아교육연구』, 제5권 2호(2004), pp. 62~63.

<sup>58</sup>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 70일전투로 들끓는 여러 교육기관들에서,” 『로동신문』, 2016년 3월 11일;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 사업으로 - 학교일이자 공장일이라는 관점에서 - 평남배수리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로동신문』, 2016년 3월 27일; “모두가 학부형 - 함흥시 회상구역 수도오급중학교에서 만난 사람들,” 『로동신문』, 2016년 3월 27일; “숙천군 평화고급중학교 훌륭히 개건,” 『로동신문』, 2016년 4월 26일; “최상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갖춘 본보기, 표준으로,” 『로동신문』, 2016년 7월 29일; “사랑의 ‘왕차’가 왔다 - 평천구역 새마을유치원에서,” 『로동신문』, 2016년 9월 1일; “함흥초등학교, 중등학교 개건 공사를 힘있게 - 함경남도에서,” 『로동신문』, 2016년 9월 8일.

는 애국사업을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피해복구 지역 교육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김정은은 “전국적으로 피해복구지역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교구비품과 학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여 “온 나라에 지원 열풍”을 일으켰다고 설명한다. 또한 피해지역 학생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불러 위로한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피해복구지역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육위원회·체육성의 책임일군’은 교육사업에 필요한 교육설비, 체육기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sup>59</sup>

12년제 의무교육 실시에 있어 부족한 학교를 건설하는 방침에 따라 2015년에 두 개 분교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학교를 건설했다고 관련기사에서 언급한다. 남포시와 평안북도, 자강도, 황해남·북도에서 초등·중등학원 건설을 빠른 속도로 진척하거나 추진하는 한편 평양 은정구역 위성소학교도 세웠다고 전했다. 평양중등학원 준공식 이후에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주체사상 연구조직 대표단을 참관하게 했다는 소식도 나온다.<sup>60</sup>

분교 사업은 의무교육을 전 지역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군(郡)단위와 1명의 학생이 있는 곳에도 분교를 세우고 교원을 배치하여 배움이 이루어진다고 묘사한다.<sup>61</sup> 분교는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이 비껴” 있어서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책임 대상으로 학부형, ‘군일군들’, ‘광산종업원들’, ‘농장마을사람’ 등을 언급한다.<sup>62</sup> 후대교육은 새 세대를 키우는 것임을 강조하며 후원기금을 거두거나 후원단체를 조직하고 후대를 키우는 것이 혁명가의 본질임을 말하고 있다.<sup>63</sup>

<sup>59</sup> “교육부문을 적극 도와주는 것은 조국의 래일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 - 피해지역 교육조건보장을 증차대한 사업으로,” 『로동신문』, 2016년 10월 28일.

<sup>60</sup> “두개의 분교를 새로 건설 - 승호군의 일군들과 인민보안원들,” 『로동신문』, 2015년 11월 30일; “초등, 중등학원건설 빠른 속도로 진척 - 남포시에서,” 『로동신문』, 2016년 7월 2일; “신의주초등학원, 중등학원건설 적극 추진 - 평안북도에서,” 『로동신문』, 2016년 7월 3일; “행복의 웃음넘치는 수영장 - 은정구역 위성소학교에서,” 『로동신문』, 2016년 7월 13일; “중등교육환경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건설된 원아들의 행복의 요람 - 평양중등학원 준공식 진행,” 『로동신문』, 2016년 7월 19일; “초등학원, 중등학원 건설 본격적으로 추진 - 자강도에서,” 『로동신문』, 2016년 8월 1일; “초등학원건설 힘있게 추진 - 황해북도에서,” 『로동신문』, 2016년 8월 3일; “청진초등학원, 중등학원건설 마감단계 - 함경북도에서,” 『로동신문』, 2016년 8월 12일; “초등학원, 중등학원건설을 본격적으로 - 평안북도, 황해남도에서,” 『로동신문』, 2016년 8월 21일;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 평양중등학원 참관,” 『로동신문』, 2016년 9월 2일; “주체사상 연구조직 대표단들 평양중등학원 참관,” 『로동신문』, 2016년 9월 8일.

<sup>61</sup> “분교의 종소리 더 높이 울려가리,” 『로동신문』, 2014년 9월 7일; “백두산기슭에 새 분교가 훌륭히 꾸러졌다,” 『로동신문』, 2015년 10월 12일; “한명의 학생을 위해서도 학교가 있고 교원이 있는 나라 - 신의주교원대학부속 소학교 수운도분교를 찾아서,” 『로동신문』, 2016년 9월 5일; “간석지마을에서 울리는 배움의 종소리 - 문덕군 화풍고급중학교 화풍분교를 찾아서,” 『로동신문』, 2016년 9월 10일.

<sup>62</sup> “분교는 작아도 학부형은 수백명,” 『로동신문』, 2015년 3월 21일.

<sup>63</sup> “후대교육사업은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로동신문』, 2014년 9월 5일;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 내용에 분교를 위해 ‘통학버스와 통학 배’ 등을 운영한다고 언급했다.<sup>64</sup> 분석에 포함된 기사에는 대중교통이 없지만 “꿈을 신고 달리는 통학빠스”(『로동신문』, 2016년 3월 27일.) 기사를 통해 연산군 대군리 학생에게 학교를 오고가는 길에 버스를 제공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 라. 대중운동

12년제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대중운동은 교육사업과 함께 이루어지는 상황 관련 기사에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김정은은 “중앙과 지방의 당, 국가 경제기관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일군들이 교육사업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와 발걸음을 같이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강조하며<sup>65</sup> ‘온 나라가 교육사업을 힘 있게 추진하고 ‘전당적·전국가적·전인민적’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강계제1중학교를 방문했던 일군은 학생이 자기 집에 있는 컴퓨터를 학교에 가지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학교에 컴퓨터 10대를 기증한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실습실은 하나 밖에 없고 수업에서 “컴퓨터리용율은 교육내용의 개선과 함께 높아”지는데 학교 차체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군’은 학생의 문제점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학생들의 부모, 학부형”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묘사한다.<sup>66</sup> 대중운동은 학교 교직원, 기관과 지역일군들, 학부모가 함께 동참하여 학교를 건설하거나 교육 시설을 개건하고 지역 내 학교를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주인’이며<sup>67</sup> “모두가 학부형이 되자”는<sup>68</sup> 구호를 제시한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 받들어 새겨가는 헌신의 자욱 - 조선교육후원기금 일군들의 소행을 두고,” 『로동신문』, 2015년 4월 4일; “학교가 자랑하는 <우리 후원단체> - 신의주시직관선전사 일군들과 종업원들,” 『로동신문』, 2015년 5월 4일; “후대들을 키우는 혁명가의 본분을 지켜 - 평양 시안의 교육자들,” 『로동신문』, 2015년 12월 9일; “인재후비양성을 위한 지름길 - 만경대구역 광명고급중학교에서,” 『로동신문』, 2016년 5월 20일.

<sup>64</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2년 9월 26일.

<sup>65</sup> “교육사업을 중요한 국사로 내세우고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강하게 밀고 나가자,” 『로동신문』, 2015년 3월 21일.

<sup>66</sup> “당의 뜻을 받들어 온 나라가 교육사업을 힘있게 떠밀어주자 - 참된 주인은 언제나 만족을 모르다,” 『로동신문』, 2014년 10월 27일.

<sup>67</sup> “교육사업을 자기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 강원도 일군들,” 『로동신문』, 2015년 2월 9일; “이들처럼 교육사업의 진정한 주인이 되자 - 대동강구역 일군들의 사업경험을 놓고,” 『로동신문』, 2015년 10월 27일; “이들처럼 교육사업의 진정한 주인이 되자 - 관산국 일군들의 사업을 놓고,” 『로동신문』, 2015년 11월 24일; “학교사업을 책임된 주인된 자각 - 사리원시 정방협동농장에서,” 『로동신문』, 2016년 10월 28일.

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과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을 위한 집단적인 가치를 공유하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 마. 정령

북한당국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충실하며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관철로 혁명적인 인재로 키우는 학교에 3중영예의 붉은기, 2중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해 왔다.<sup>69</sup> 2014년에서 2016년까지 8번에 걸쳐 3중영예의 붉은기는 3개 학교, 2중영예의 붉은기는 9개 학교, 영예의 붉은기는 20개 학교에 수여했다. 북한당국은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제1중학교 중심의 수재교육 모범을 따라 중등일반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각 학교가 ‘자기 힘’으로 학교의 교육시설과 환경을 새롭게 만들고 교수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결국 북한당국은 각 지역과 학교, 학급 단위 경쟁력 강화를 독려하면서 ‘붉은기 수여’ 보상을 통해 학교 교육 정상화를 이룩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sup>68</sup>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이룬 일군들을 부른다,” 『로동신문』, 2015년 4월 1일.

<sup>69</sup> “모범적인 학교들에 3중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4년 9월 7일; “모범적인 학교들에 2중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5년 4월 19일; “모범적인 학교들에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5년 6월 19일; “모범적인 학교들에 3중영예의 붉은기, 2중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5년 8월 26일; “모범적인 학교들에 2중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5년 10월 17일; “모범적인 학교들에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6년 1월 18일; “모범적인 학교들에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6년 2월 16일; “평성시 중덕소학교에 2중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6년 5월 17일; ‘붉은기’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 기치, 붉은 색 깃발은 신호, 장식 등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쓰이지만 사회정치적으로 단순한 붉은색의 깃발이 아닌 혁명과 해방투쟁의 상징을 의미한다. 붉은기사상은 아무리 어려운 과업이라도 자기 힘으로 해내야 한다는 정신이다.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12)』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9), pp. 32~33.



<표 3> 붉은기 수여 학교 현황

	3중 영예의 붉은기	2중 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
2014년	-라선시 라선지구 라진소학교		-신의주시 신남고급중학교 -룡림군 룡림고급중학교
2015년	-평천구역 봉학소학교 -평성시 덕성소학교	-라선지구 역전소학교 -순안구역 재경고급중학교 -해주시 부용초급중학교 -사리원시 대성소학교 -청진시 수남구역 어항소학교 -라선시 제1중학교 -봉천군 화촌고급중학교 -수안군 금화소학교	-신의주시 광복고급중학교 -동림군 동림소학교 -사리원시 구천고급중학교 -신평군 창평고급중학교 -허천군 상농소학교 -해산시 해화소학교 -연안군 연안소학교 -사리원시 김성포고급중학교 -함주군 붉은별고급중학교 -강계시 서산소학교 -명천군 명천초급중학교 -사리원시 신양초급중학교 -연탄군 연탄고급중학교 -함흥시 사포구역 사포소학교
2016년		- 평덕시 중덕소학교	-신의주시 남하소학교 -은파군 광명고급중학교 -동림군 마성고급중학교 -성간군 수침초급중학교

## 바. 현지도

북한당국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현지도도를 다닌 학교를 소개하면서 학교 교육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sup>70</sup> 김정은 또한 2016년 평양 중등학원 건설과정에 현지 지도를 통해 12년제 의무교육 시행에 국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보도를 통해 보여준다.<sup>71</sup>

<sup>70</sup> “사연깊은 옥잠화에 비긴 지극한 마음, 안주시 영웅안주고급중학교 교직원, 학생들,” 『로동신문』, 2014년 12월 14일; “그리움으로 설레이는 교정 - 개성시 3중 영예의 붉은기 선죽고급중학교에서,” 『로동신문』, 2015년 4월 12일.

<sup>71</sup>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중등학원을 현지도도 하시였다,” 『로동신문』, 2016년 7월 3일; “원아들의 행복의 웃음소리와 더불어 조국강산이 더욱 밝아진다 -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도도를 받은 평양중등학원에서,” 『로동신문』, 2016년 7월 29일.

## VI. 맺음말

김정은 집권 초반인 2012년 9월 25일에 북한당국은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법령을 제정했지만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는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나타난다. 2014년 신학기 시작 시점부터 실시한다고 선언해 놓았지만 그 당시에 북한 전역에서 시행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증거로 2017년 4월 1일부터 조선중앙통신에서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전면 시행을 선언하고 「로동신문」 4월 2일자 기사에서 이 일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거둔 또 하나의 빛나는 승리”라고 강조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진이 이 논문을 통해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로동신문」 수록 기사에서 북한의 12년제 의무교육 관련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북한당국이 교육제도 개편을 실제로 시행하기 시작한 이후 전면적 시행에 돌입하기 전 단계까지 초창기에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했다고 하겠다. 연구진은 실제로 「로동신문」 수록 기사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표현 양상과 행간에 숨은 의미를 분석하였다.

물론 이 작업을 통해 연구진이 앞서 들어가는 글에 제시해 둔 의문점을 완벽하게 해소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북한당국이 이른바 공간(公刊) 자료로 발행하는 신문과 잡지를 필두로 하는 문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 걸림돌로 작동한다. 북한학 연구집단 내에서도 소위 원전(原典) 자료 활용에 논란이 있다. 북한당국이 발행하는 자료는 신뢰할 수 없으므로 그런 문서에 나온 내용을 분석하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의혹이 힘을 발휘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연구진은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다만 북한당국의 공간 자료가 지닌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2년 이상 「로동신문」 기사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등 나름의 대비책을 통해 그 사회 내부의 작동원리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얻는 원천으로 활용하는 길을 제시했다. 이 논문에서 관련 기사를 분석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당국의 12년제 의무교육 목표는 ‘새 세기 혁명’과 ‘인재 강국’으로 나타난다. 새 세기 혁명을 통해 인재 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는 뜻이다. 이 말은 곧 북한 당국이 제시하는 전인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사회주의 교육 강국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인재상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둘째, 의무교육제도 시행을 위한 교육방법은 교수방법과 교수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교육제도 초기에는 교수방법을 탐구하거나 혁명교육 등의 이상적인 부분에서 교편물 제작과 ‘산 지식’ 전달을 위한 현장 중심으로 적용할

것을 독려한다. 그 이후 실용적인 교수방법으로 교재 연구 토론 진행 및 교수안을 새로 작성하고 평가 기준 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원의 자질은 정치 사상성과 탐구하는 모습을 요구하고 있고, 교육의 정보화와 현대화를 위해 컴퓨터와 실험 실습실 등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다.

셋째, 의무교육제도 교육사업에서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에 힘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실습실을 만들거나 컴퓨터를 설치하고, 학교 관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학교와 분교, 초등·중등학원을 새로 건설함으로써 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는 물리적인 교육환경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12년제 의무교육제도 법령을 살펴보면 ‘국가적 투자’를 하겠다고 명시해 놓았는데 「로동신문」 기사를 통해 국가적인 투자 부분에서 재정적인 지원보다 현지지도를 통한 최고지도자의 관심과 학교 교원, 기관과 지역일군들, 학부모의 각 지역 내 학교를 책임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당국은 결국 고난의 행군으로 무너진 학교 교육의 시스템을 12년제 의무교육의 “전국가적·전인민적·전사회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재 양성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인데 중등일반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북한이 강조하는 “공산주의적 혁명인재” 양성을 통하여 국가 체제의 견고함을 유지하려는 목적도 엿볼 수 있다.

2017년은 김정은 정권이 12년제 의무교육제도 법령 제정 후 5년차에 접어들었다. 의무교육법령 제정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당국은 교육방법과 교육환경 개선을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당국의 독려로 학교 건설 사업이 증가하고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면서 교육 제도 시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 교원과 기관·지역 일군들, 학부모의 대중 동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강조하는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 자체가 북한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 접수: 4월 25일 ■ 심사: 5월 15일 ■ 채택: 6월 15일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경희. 『교육학 개론』. 서울: 집문당, 2011.
- 김동규. 『사회주의 교육학』. 서울: 주류, 1988.
- \_\_\_\_\_. 『북한의 교육학』. 서울: 문맥사, 1990.
-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동경: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1977.
- 김형찬. 『북한의 주체교육사상』. 서울: 한백사, 1990.
-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7)』.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8.
- \_\_\_\_\_. 『조선대백과사전(12)』.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9.
- 이은죽. 『북한사회연구: 사회학적 접근』. 서울: 서울대학교출판사, 1988.
- 이향규·조정아·김지수·김기석. 『북한 교육 60년: 형성과 발전, 전망』. 서울: 과학교육사, 2010.
-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주체로동당출판사, 2006.
- 조선백과사전편찬위원회. 『광명백과사전 7: 교육, 어학, 출판보도』.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11.
- 조정아·이교덕·강호제·정채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6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 2. 논문

- 김영주.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과의 연계 - <로동신문> 언론관련 사설을 중심으로.” 『언론학연구』, 제6집, 2002.
- 김지수. “북한의무교육제도의 전개와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추진에 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제23권 제3호, 2013.
- 문장순. “북한 교육의 변화와 당면과제.” 『남북문화예술연구』, 제6권, 2010.
- 박찬석. “북한의 새로운 세대와 교육: 북한 교육의 현실과 전망.”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2014.
- 조정아. “김정일 시대의 북한 교육 정책.” 『아시아교육연구』, 제5권 2호, 2004.
- \_\_\_\_\_. “2000년대 북한의 교육 전략과 교육생활세계의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2009.
- \_\_\_\_\_. “김정은시대 북한 교육정책 방향과 중등교육과정 개편.”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 한만길·이관형. “북한의 12년제 학제 개편을 통한 김정은 정권의 교육정책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2호, 2014.

### 3. 기타자료.

『로동신문』.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

## An Analysis of North Korea's 12-Year Compulsory Education System, from Rodong Newspaper

*Seok-Hyang Kim & Kyung-Me Kim*

Since the initial days of the regim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taken a special interest to their public education system, as it was seen as a powerful means of maintaining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system that was in place. Given its importance, the educational system remained a largely unchanging constant much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However, starting from the reign of Kim Jong Eun in 2012,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dded an extra year to their compulsory educational system. This paper seeks to address the impact that this change in educational system has had on the daily lives of North Korean people, as well as to understand Kim Jong Eun's motivation behind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nge. To delve into these questions, this paper has analyzed articles regarding this 12-year compulsory education system from the Rodong Newspaper. These articles were all printed between the dates of September 1, 2014 and October 31, 2016. Through this analysis, this paper has concluded that there are two goals of the new compulsory education system: to create a "New Century Revolution" and to create a "Powerhouse of Talent". Additionally, analysis shows that the system encouraged a change in teaching methodology to increase North Korea's quality of education. While the implementation of stronger teaching methodology and longer academic periods can be beneficial to North Korean students, the sudden and mass mobilization of this change in the educational system could also be seen as an extra burden for the families of North Korea.

**Key Words:** 11-Year Compulsory Education, 12-Year Compulsory Education, North Korean Education, Rodong Sinmun (Newspaper), Era of Kim Jong Eun